코캄엔지니어링 2차전지 세계적 명성

초소형비행기, 로봇새, 태양열 자동차, 초박형 디지털카메라 등 첨단제품의 동력원으로 국내 벤처기업인 코캄엔지니어링(대표 홍지준)의 리튬폴리머 2차전지가 채택돼 주목받고 있다.

코캄엔지니어링의 전지를 장착한 비행기, 자동차 등이 국제적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2차전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볍고도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 분야에서 코캄엔지니어링의 전지가 각광받고 있다.

2002년 4월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세계적 권위의 국제 초소형비행기 경연대회에서 코캄엔지니어링의 리튬폴리머배터리를 장착한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 비행에 성공한 9팀 중 1위를 차지한 브리검영대학교팀 외에도 4팀이 코캄엔지니어링의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장착하고 나와 상위권을 휩쓸었다. 한-일 월드컵 개막식에서 날아오른 로봇새 [사이버드]에도 코캄의 전지가 장착돼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줬다.

또 저명한 태양열 자동차 대회인 미국솔라챌린지에서 코캄엔지니어링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출전한 팀들의 자동차가 상위에 입상했다.

최근 코캄엔지니어링이 개발한 1㎜ 두께의 리튬폴리머 2차전지가 세계적 브랜드인 후지필름이 개발한 6㎜ 두께의 디지털카메라의 전지로 채택됐다.

세계 2차전지 시장의 70%를 장악한 2차전지의 종주국 일본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1㎜ 두께의 2차전지를 한국의 벤처기업이 개발했기 때문이다.

2001년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코캄엔지니어링은 2002년에는 300억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2001년에는 매출의 98%를 수출로 기록했다.

2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1차전지와 달리 충전해 다시 쓸 수 있는 전지로 2차전지 중 리튬이온배터리가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등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리튬폴리머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불안정해 폭발 위험성이 있는 리튬이온배터리의 단점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08>